

카디¹⁾운동을 통해서 본 복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 자 연

신라대학교 생활환경학부 패션디자인산업학 전공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Costume with Khadi Campaign

Ja-Yeon Lee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Sill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symbolic potential of the costume by investigating the role of cloth in Indian culture, noting the fact that Indians wore hand-woven cloth and adopted a flag with the spinning wheel in the center as part of their nationalistic programs for independ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Indian cotton industry had held the first position in the world and spinning and weaving had been an Indian national industry until the early part of the 19th century.

As for the Indian cotton industry under the rule of Britain, India was reduced to being a colony producing raw materials and a market of cheap British finished goods, and eventually fell into anarchy with economic poverty of the general public and peasants' uprising mixed with the complaint of the intellectuals.

The Indian National Movement started as a resort to escape the British rule because of continuous poverty and social exhaustion, and its pivot was Gandhi.

Gandhi launched a revolutionary noncooperation movement in Indian society with diverse races, religions and castes, and developed nation-wide campaigns such as Boycott, Swadeshi, the encouragement of spinning wheels, etc.

Gandhi urged that Indians' weak identity and poverty were caused by the dissolution of their native craft and that the Indians should wear Indian products for economic independence. Accordingly, leaders of Indian National Congress regarded a spinning wheel as an economic necessity and national symbol, and approved manual spinning and weaving as part of their nationalistic programs in order to draw the general public to the nationalistic movement in 1920. They also decided that all Congressmen should wear hand-woven cloth, Khadi, and adopted spinning wheels as the logo type of Indian National Congress.

Khadi, Indian national cloth, was a symbol of national unification, freedom and equality, and also a means of economic self-sufficiency, Swadeshi, and eventually led India to autonomy, Swaraji.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loth converted India's economic and political identity.

Key words : khadi campaigns, nationalistic programs, national symbol.

I. 서 론

한 문화권 내에서 당연시되어온 물질문화나 일상

생활 등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는 하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구미에서는 물질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려는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

1)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 손으로 직접 천 직물을 가리킴.

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²⁾. 예를 들면, 물질문화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 방법 중의 하나로 물건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다른 연구영역을 접목시키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연구영역으로는 젠더(gender), 에스니시티(ethnicity), 문화적 아이덴티티(identity), 식민주의, 교환, 문화변혁, 활성화, 정치, 경제 등 수없이 많은 것을 들 수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이 오랫동안 경험해 왔고, 인간의 생활과 함께 해 온 물질문화인 服飾을 중심으로 타 영역인 식민지에서의 정치·경제와 접목시켜, 항상 우리의 생활 가까이 있는 물건인 服飾이 그 당시의 국가나 사회 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즉, 인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특수한 상황에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 손으로 직접 천을 짠 직물인 카디(khadi)의 생산을 위해 전개한 카디운동과 물레가 그려진 旗를 채용할 것 등 천을 독립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 포함시킨 점에 주목을 하고, 카디라는 천이 인도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위한 매체로서 끼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인간 생활에 있어서 복식의 존재의의와 이들과의 관계를 재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복식문화를 형성시킨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 카디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자 인도가 외국의 지배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카디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생각되는 면산업의 붕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카디운동을 전개하게 된 주체인 민족주의자 간디에 대해 알아보고, 인도가 정치적·경제적인 자치를 획득하기 위해 카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해 그 전개과정과 의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과 언론의 보도자료 사진 등을 참고로 한다.

II. 카디운동의 역사적 배경

1. 외국세력의 진입과 영국의 식민지 정책

서구 세력으로서 가장 일찍이 동양으로 진출했던 포르투갈인들은 고아에 이어 봄베이, 마드라스 및 벵골 등지에 상관을 설치하고 인도 본토와 활발한 무역활동을 진행시켜 나갔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인도와 동양 여러 나라로부터 향료와 직물을 대량으로 구입해 갔으며 16세기말까지 동양 무역은 사실상 포르투갈의 독무대였다. 16세기말부터는 동양으로 진출했던 영국과 네덜란드는 적극적인 상업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마침내 양국이 각각 東印度會社를 창립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포르투갈의 세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처음에는 향료 등의 생산지의 점유를 꾀하여 자바, 마라카 등지에서 대립했으나, 17세기 전반에는 네덜란드가 강했기 때문에 영국은 후퇴하여, 당시 포르투갈 세력이 약화되어 있던 인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마침내 마드라스, 봄베이, 캘커타의 三大 거점을 중심으로 인도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프랑스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동인도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인도 진출은 영국과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에도 인도에서의 英·佛 兩國의 항쟁은 계속되었으나, 1757년 플라시 戰役에서 영국의 클라이브의 활약으로 프랑스를 압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플라시 전쟁을 계기로 벵골 지방을 장악한 후 처음 10년 동안은 뇌물과 부패가 횡행하던 무정부 상태로 영국인들이 원주민을 희생시키면서 蓄財에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다. 동인도회사 직원들의 무절제한 사리사욕에 탄압이 그들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야기된 회사의 재정적 위기는 동인도회사의 전체적인 이익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위기는 인도 통치에 대한 문제에 국가가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773년에 인도 통치 규제법이 영국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이 법은 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규정한 법으로 영국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역을 하나의 최고통치권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플라시 戰役 후 인도의 통치기관으로 변모하여, 우선 벵갈 지방을 會社領으로 하고, 그 후 남인도의 마이소르, 中印度의 마라타

2) 대표적인 연구자로 A.B.Weiner와 Jane Schneider가 있다.

동맹, 서북인도의 시크교도 등의 諸勢力을 차례로 타도하였다. 그 결과 同會社는 19세기 중엽까지에는 거의 쑤 印度를 지배하기에 이르렀고, 세포이의 전란(1857~1859)을 계기로 무갈조는 완전히 멸망하고, 동인도회사에 의한 통치는 영국 정부의 직할통치로 되었다가 1877년 새로 英領印度帝國이 성립하여, 마침내 인도는 완전히 독립을 상실하고 외국에 지배당하게 되고 말았다.

2. 면산업의 붕괴와 민족운동의 전개

기원전 200년, 내로 통치시대의 로마인 사이에는 섬세하고 반투명한 인도 모슬린인 네브라(nebula) 및 벤티(venti)직물(짜여진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유행하고 있었으며, 염색의 질도 로마 세계에서 평판이 높았다고 한다³⁾. 또한, 5세기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단이 인도와 간다라에서 중국에 직물을 운반하였고, 11세기에는 유대인 500가구가 중국 북송의 수도에 정주하고 있을 때, 선물로 가져가기 위하여 인도에서 면제품을 샀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며⁴⁾, 그리고 1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산 면 조각이 카이로 근처의 포스트담트에서 발견되는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아, 오래 전부터 인도 면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무갈제국 초기부터 번성했던 면직물 공업과 활발한 대외무역은 18세기에 계속되어 세계 제1의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었으며, 19세기초까지도 실을 짓고 천을 짜는 일이 인도의 국민산업이었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면직물 수출은 영국 동인도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상품은 영국에서 소비되거나 혹은 영국을 거쳐 유럽 대륙에 재수출되었다. 인도가 생산한 값싸고 품질 좋은 직물이 영국에서 호응을 받게 되자 영국의 직물 제조업자들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인도의 직물공업을 파괴해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즉, 영국의회는 1700년과 1720년에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인도로부터 수입한 면직물 및 견직물은 영국 직물공업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도에

서 영국 내에서는 입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직물에 대한 보호정책이 내려진 이후, 영국의 면직물 공업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한 인도의 수탈을 발판으로 해서 성장한 영국의 산업자본은 산업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동인도 회사의 무제한 수탈과 무역독점에 반대하고, 인도를 영국의 상품시장과 원료기지로 만들도록 요구하게 되어 그 한계 내에 있어서 수탈의 합리화를 그 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그런 정책의 집약적 표현이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걸친 토지제도의 설정과 1813년 이래의 무역독점 해제, 또한 농업 원료품의 강제분배와 裁植企業의 장려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에 따라 영국상품이 인도에 몰림듯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이 인도에 수출한 면직물의 연간 액수는 1790년에 약 120만 파운드였던 것이 1809년에는 1840만 파운드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⁵⁾, 그 후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1814년에서 1835년 사이에 인도로 수출한 영국의 면직물은 1백만 야드도 못 된 정도에서 5100만 야드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영국이 수입해 간 인도의 무명 옷감은 125만 필에서 30만 6천 필로 떨어졌으며, 1844년에는 겨우 6만 3천 필에 이르렀다. 가격의 대비도 두드러져, 1815년에서 1832년 사이에 수출한 인도 면직물의 가치는 130만 파운드에서 10만 파운드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17년 동안에 거래가 13분의 12의 감소를 보인 것이다. 같은 기간에 인도로 들어온 영국 면제품의 가치는 2만 6천 파운드에서 40만 파운드 즉 16배의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818년과 1836년 사이에 영국에서 인도로 들어온 무명실과 밧줄의 양은 5,200배나 뛰어들었다⁶⁾. 1879년에는 영국 직물업자들의 집요한 요구로 인도에서 모든 면직물에 대한 수입세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영국의 면직물이 인도로 대량 밀려들어 왔으며 말할 것도 없이 인도의 면직물업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입게 되었다. 플라시 전쟁으로 뺨길 지방에 영국

3) Irwin, John. *Indian Textiles in Historical Perspective*, Marg X V(4), 1962.

4) Gittinger, Mattiebelle. *Master Dyers to the World*, Washington, D.C.: Textile Museum Gold, Gerald, 1982, p.13.

5) Majumdar R.C. *An Advanced History of India*,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1980, p.803.

6) Martin, Lewis. *The British in India-Imperialism or Trusteeship*, Boston:Beacon Press, 1982, p.46.

의 지배권이 확립된 지 불과 반세기만에 이 지역의 번영은 처참하게 회생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인도의 직물공업은 파멸되고 수많은 수공업자는 직업을 잃고 몰락했다. 이렇듯 영국의 수탈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는 식민지적 상품 원료시장으로 재편성되게 되었고 이는 공공연한 약탈보다도 오히려 실제로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합법적인 수탈방식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영국의 인도지배도 그 모순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구매력의 감소로 인하여 영국 상품의 수입액은 격감되는 한편 인도인의 저항은 증대되어 인도의 재정은 파탄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영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타파하려는 강력한 새 세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회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영국 지배하의 인도의 정치적 통일, 유럽과의 접촉, 기술의 진보 그리고 다 같이 피정복자라는 불행 등은 새로운 사조를 낳아 점차 근대적인 상공업을 발달시키고,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새 운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즉, 인도인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들어온 영국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경제면뿐만 아니라, 문화나 사상, 언어 및 생활 관습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중 직접적인 큰 변화는 교육, 종교, 저널리즘 및 사상에 있어서 영국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이었다⁷⁾.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활동의 발전은 영국 지배의 정치적·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었다. 그 결과, 인도인 사회에는 지금까지 없던 사회계층, 즉 도시 중간 계층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간 계층은 19세기 인도의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꾀어준 사람들이며, 그리고 인도의 일체화 움직임의 핵심이자, 후에 민족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가 된 계층이었다. 인도의 대중은 절망적인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나, 새 시대 하에서 대두한 중간계층은 정치상의 개혁과 투자의 기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인도의 민족 운동은 그들의 지도하에 통일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인도 자본가 계층은 그들의 이익에 가장 직접적인 장애로 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식민지 지배권력임을 그 공업발전 저지정책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자본가 및 지주 계층 출신인 지식층도 영국인에 의한 차별대우, 문관임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불평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한편, 유럽 문화의 충격은 일찍이 19세기 초엽부터 침체할 대로 침체해 있던 인도의 문화 사상계에도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켜, 이러한 신흥중산계층의 反英感情은 우선 초기에는 문화 종교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대체로 유럽 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경향과 반발적인 경향의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이 兩者는 다같이 유럽 문명에 혼을 팔고 있는 인도인들에게 그들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여 민족적 자부 정신을 회복시키려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신흥중산계급의 광범한 호응을 얻어 민족 정신을 앙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본가, 특히 구미문화의 혜택을 받은 지식층은 영국의 인도 통치의 융합화를 피하는 동시에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정치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다. 즉, 印度人聯盟(1876), 印度人協會(1883)을 비롯한 수개의 정치 단체가 결성되었는데, 이런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1883년에는 인도 국민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⁸⁾.

중산계급의 지도하에 최초로 전개된 전국적 민족 운동이었던 벤갈 분할반대투쟁은 제국주의의 단계에 들어선 영국 독점자본의 수탈에 반항하는 것이었다. 벤갈 분할반대투쟁에 뒤이은 反英運動은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접어들면서 물가의 앙등, 해외 시장의 상실, 가격의 통제 등으로 민생고가 심해진 데다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선전으로 민중의 정치의식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 미국에 기자를 둔 인도 혁명당은 好機가 도래했다고 보고, 독일과 결탁하여 인도에 잠입, 각처에서 무력반란을 시도하였다. 범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받아 오던 회교도들은 영국이 그들이 존중하던 터키의 킬라와와 적대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요하여, 그들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 반영 세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새로 발흥한 중산계급은 점점 민족주의적 경향을 짙게 해 갔다.

7) 車基壁, 간디, 太陽出版社, 1977, p.33.

8) 車基壁, 前掲書, pp.35-38.

Ⅲ. 카디운동과 복식의 의미

1. 간디의 출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빈곤과 피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인은,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해결책으로 인도 각지에서는 민족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이 운동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민회의파가 창립되었다. 인도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임하고 나섰던 국민회의는 처음에는 영어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인도 사회의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대중적 집단으로 성장해 나갔다. 따라서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어 왔던 주류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중간계급에서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민중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민중운동의 중심인물이 간디였다. 억압받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서민들은 간디를 고통과 기아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위대한 해방자로 바라보았으며, 지금까지의 무기력한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에서 간디를 지지하고 나섰다.

간디가 정치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인도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후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 마하트마로 불리어졌던 간디는 1869년 10월 2일, 현 구자라트주의 카티아와르반도에 자리잡고 있는 해안도시 포르만다르(白布라는 뜻)에서 태어났다. 부친인 카라만찬드 간디는 포르만다르의 토후의 수석장관으로 일한 사람으로, 喪妻를 거듭하면서 네 번 결혼을 하였는데, 그 네 번째의 妻인 파틀리바이와의 사이의 3남 1녀 중 간디는 그 막내로 태어났다. 간디는 런던에서 3년 유학을 마친 후 변호사로 출발하였으나 구자라트와 봄베이에서 그의 변호사 생활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893년 남아프리카의 모슬렘 사업가로부터 그곳의 인도인들을 위하여 근무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남아프리카의 나탈에는 4만여 명의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1860년 이후 새로운 노예제에 따라

계약노동자로 남아프리카에 보내진 사람들이었다. 1830년대에 대영제국 내의 노예제가 폐지되어 흑인 노예가 해방되자 나탈의 설탕 재배업자들은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간디는 1년 계약으로 남아프리카에 갔지만 동족의 바참한 인종적 차별대우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곳에 20년 동안이나 머물고 말았다. 간디가 인도의 정치무대에 직접 뛰어들었던 것은 1917년부터 비하르 지방과 구자라트 지방의 억압받고 있던 노동자들의 문제에 개입하면서 비롯되었는데⁹⁾, 간디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인 관리들을 굴복시켰고, 이러한 간디의 투쟁활동으로 인도국민은 물론 영국인들도 놀라게 만들었다. “우라에게는 간디가 이상주의자이고 광신자이고 혁명주의자로 보이는데, 소작인들에게는 특별한 힘을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해방자로 생각되고 있다¹⁰⁾” 라고 한 영국인 루이스의 지적대로, 그의 눈부신 활동과 강연으로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간디는 마침내 일반 대중의 우상적인 지도자로 변신하게 되었다.

2. 카디운동의 전개

간디가 정치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인도의 독립운동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간디는 일반 대중의 우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인기는 그가 보여준 요포에 술만을 두른 가난한 인도인의 옷차림과 항상 3등실 기차 여행을 하면서 서민들과 광범하게 접촉하는 소박한 모습이 하층민에게 격의 없는 친근감을 주었고,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은 말을 하므로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의 정서를 붙잡는 그의 능력은 비범하였다. 이렇듯, 간디에 대한 인도인의 지지는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종교적 장벽을 극복하였는데, 즉 힌두교에 근거한 그의 철학적 이념은 이슬람교, 기독교 및 다른 종교에서 빌려온 자극적인 요소와 결합하기도 하였으며, 인종, 종교, 카스트가 다양한 인도 사회에서 힌두와 모슬렘 사이의 통합, 복잡한 인종적 카스트 집단 사이의 협조에 특별한 역점을 두기도 하였다. 간디의 이러한 행동의 근본

9)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pp.504-505.

10) Brown Judith M., *Gandhi's Rise to Power: Indian Politics 1915-19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68.

은 그가 오랫동안 남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사티아그라하(Satyagraha)였다. 사티아그라하란 진리과학, 진리추구라는 인도의 고유언어로, 비폭력의 수단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쟁에서는 난폭한 방법으로 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사티아그라하에서는 쌍방이 정의와 공명정대함에 입각하여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사티아그라하에서 파생된 것이 비폭력 비협조인데, 이것은 쌍방이 투쟁하는 동안에 상대편의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 이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된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인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여기에 힌두와 모슬람이 함께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사티아그라하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으로서 간디는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¹¹⁾, 영국상품배척 운동(Boycott)과 토산물사용 운동(Swadeshi), 물레의 장려, 비폭력 무저항주의 등의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영국상품배척 운동과 토산물사용 운동은 그 성격상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영국상품배척 운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 면직물산업의 파멸이 가져온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맨체스터 면직물에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인도인이 외국제품보다 인도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영국정부의 파괴적인 힘과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개한 운동이다. 토산물사용운동 또한 민족주의자들 간에 퍼져서 실천되었는데, 영국정부가 인도의 천에 관세를 행사하였을 때, 토산물사용 운동의 추진자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영국상품배척 운동으로 자세를 바꾸었다. 인도의 과거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파알은 “영국상품배척 운동을 각 지방에까지 파급시켜 영국 지배에 대항할 영원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역시 과거파의 라이도 “토산물장려 운동과 영국상품배척 운동을 인도의 새로운 종교로서, 자기 희생적 애국심의 표현으로써, 自助하는 인도

국민을 만드는 수단으로서, 또 영국 지배에 대한 인도 국민 투쟁의 선봉으로서¹²⁾ 찬양하며 지지하였다. 즉, 인도인은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써 영국의 의복을 사는 일과 입을 일을 거부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불태우는 일로 표출하였다. 그 예로서 1896년에 닷카에서 수많은 사람이 맨체스터의 천을 사지 않고 인도공장을 지원한다고 결의하였으며¹³⁾, 그 해 많은 영국제 의복이 불 속에 던져졌었다¹⁴⁾.

또한 간디는 인도의 빈곤뿐만 아니라 인도의 아이텐티티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인도의 ‘토착공예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인도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인도국민은 인도의 생산물을 입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면 직업이 다시 부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간디의 주장에 의해 일어난 운동이 ‘물레의 장려운동’이다. 이 운동은 지식계급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하층계급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운동으로 번져 나갔는데,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들도 간디의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에 대응을 참가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짠 일과 손으로 짜는 일을 1920년에 승인하였다¹⁵⁾. 그리고 1921년에는 외국제의 천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할 것과 국민회의 의원들에게 면사를 손으로 자아 손으로 짠 천 즉, 카디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것, 국민회의의 旗로 중앙에 물레가 그려진 旗를 채용할 것 등, 천을 중심으로 한 국민운동을 민족주의 프로그램 속에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1922년부터 의원들은 수입된 천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회비는 현금대신 손으로 짠 실로 지불하게 하는 등, 손으로 실을 짠 일과 짜는 일은 인도의 독립운동에 주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카디를 생산하기 위한 전 공정이 手作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手作業은 오히려 인도의 공업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들은 더욱 더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도 많았다. 특히, 초기의 민족주의자

11)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p.452.

12) Daniel, Argov, *Moderates and Extremists in the Indian Nationalist Movement*, Bombay: Bombay Press, 1977, pp.120-122.

13) Chandra, Bipin, *The Rise and Growth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ia*, New Delhi, 1966, p.126.

14) Chandra, Bipin, *Ibid.*, 1966, p.130.

15) Ashe, Godfrey, *Gandhi*, N.Y.: Stein and Day, 1968, p.249.

들은 섬유산업을 재생하여 근대화시키고 싶었으나,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생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에만 그치고 있었고, 카디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천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며 너무 무겁고 세탁하기에 힘이 들며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운동에 반대하였다. 간디는 이것에 관하여는 좀더 숙련하게 되면 보다 좋은 카디를 생산할 수 있다¹⁶⁾고 하였으며, 인도의 공업화에 대하여는 많은 민족주의 운동 지도자처럼, 인도의 공업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였으나, 그들과는 달리 기계화 산업에는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기계는 수천의 노동력을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 절약장치이고, 기계화 산업은 세계에 대한 범죄행위라 하였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인도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간디는 모든 인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물레를 이용한 수직작업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실을 잣는 일과 짜는 일은 인도의 모든 마을에서 작업부족과 영양불량이 되어 있는 대중에게 唯一의 실천 가능한 부업이라고 보았으며¹⁷⁾, 또한 실을 직접 자아냄으로써 인도는 自國人에게 옷을 입힐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의 착취와 지배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인도 사회에서는 실을 잣는 일은 여성들의 부업이었으나, 짜는 일은 항상 가스트의 작업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간디는 여성에게 실 잣는 일을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간디는 빈부와 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인도인이 노동자이고 평등하며, 일을 통하여 단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서¹⁸⁾, 계획을 바꾸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실을 잣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였다(그림 1, 그림 2). 또한, 인도 국민의 지도자들이 실 잣는 일을 매일 실행하게 되면 농민과 더욱 가깝게 생활하게 되고, 또 지식인들의 마음속에 평생동안 하루도 하지 않는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민회의의 상징인 물레의 음악소리가 확산되어 나갈 때 인도의 자유의 노래가



<그림 1> 카디를 짜고 있는 간디.
간디, 시공사



<그림 2> 카디를 착용한 간디의 모습.
간디, 시공사

16) *Ibid.*, p.249.

17) Nanda B. R., *Mahatma Gandhi*, Boston: Bacon Press, 1958, p.134.

18) Bean Susan S, *Spinning Independence, In Making Things in South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8 참조.

전국에 메아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⁹⁾. 그는 이윽고 물레를 경제적 필수품, 종교적 의례, 그리고 국가적 상징으로서 중요한 것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간디는 인도의 산업을 진흥하는 데는 문명이라는 가신사라고 하는 외국의 개념은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보다 철저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즉, 간디의 비협조운동의 하나인 물레의 장려는 산업화를 반대하는 '상징'이었으며, 비인간화의 길을 걷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간디는 민족주의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즉 설득과 협력보다 충돌과 대립을 바탕으로 한 전략 즉, 스와데시를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간디의 운동에 대하여, 네루파 및 다른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스와데시, 불매운동, 그리고 비협력운동의 프로그램에 카디가 가진 상징성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손으로 실을 짠 일과 간디를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의 독립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누구에게라도 실을 짠 일을 가르침으로써 토착산업과 대중행동을 추진시켜 어느 마을에까지도 외국제품의 불매운동을 넓히고, 그리고 대중 공민 불복종을 위한 방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간디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도자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이 운동은 인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남녀노소, 지식인이나 농민은 말할 것도 없이, 인종과 계급이 다른 전인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그림 3). 예컨대, 요리사와 하인들이 집회를 갖고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신발을 벗고 동교하기도 했으며 외국제품의 옷을 입고 교실에 나타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외국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점을 감시하였으며 고객과 판매인에게 외국 상품을 다루지 말도록 호소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영국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고객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기도 했으나 설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폭력으로 호소하는 수도 있었다²⁰⁾. 이리하여 카디는 이제 전 인도인의 의복이 되었다.



<그림 3> 카디를 착용하고 소금행진에 참석한 인도 민중들. 간디, 시공사

3. 카디운동의 의의

카디운동과 같은 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인도산 면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반면에 영국 상품의 판매량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즉, 맨체스터 면직물은 거의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많은 양이 인도로 들어오고 또한, 맨체스터 직물업자들은 영국 의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당시 1920년의 총 수입액의 1/4을 차지하였던 면직물은 1930년대 말에는 그 수입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면화와 황마, 마대 옷감과 같은 면직물의 수출은 늘날 만큼 꾸준히 지속되어 수출품목에 있어 우위의 위치를 지키게 되었다²¹⁾. 이러한 면 직업의 희생은 모든 인도인이 카디의 생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결국 면 직업의 몰락으로 인해 침체된 인도의 경제가 점차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카디운동에 참가하게 된 전 인도인은 인도의 섬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그 생산물을 입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었으며, 그 생산물을 입고서는 더 이상 영국인으로 자처할 수 없었다. 이러한 카디운동의 전개로 말미암아 카디는 인도의 독립

19) 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1994, p.516.

20) 조길태, 영국의 대인정책과 인도국민운동의 성격, 아세아연구 53호, 아세아문제연구소, 1975. pp.194-196

21) Tomlinson, B. R., 이옥순 역, 인도경제사, 신구문화사, 1994, pp.57-58.

을 추구하는 애국자와 지배국의 정책을 따르는 영국의 지지자를 구별하는 기호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이 주로 의복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점 때문에 맨체스터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은 인도인은 쉽게 구별될 수 있었는데, 당시 맨체스터에서 만들어진 천은 영국의 정치적 우세와 경제적 착취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가장 힘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 지지자들은 맨체스터 천으로 만든 의복을 입었으며, 카디는 애국자와 영국지지자를 구분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로 입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以前의 각 인종과 종교, 계급마다 의복을 달리하여 의장으로서 그 구별이 가능하였던 것이, 민족주의의 직물인 '카디의 보급'으로, 그 구별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이제는 의복으로서 더 이상 사회적 계층을 알아낼 수가 없게 되었다. 간디가 시사한 바와 같이 카디를 착용한 모든 인도인은 평등하고 똑 같았으며²²⁾, 그러한 평등 속에 인도인은 하나로 단결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단결된 힘이 인도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위한 하나의 작용점이 되었던 것이다. 즉, 폴이 "카디운동은 과거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단순히 로맨틱한 열정에서 나온 변덕이 아니라, 가난을 구제하고 농촌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실제적인 企圖²³⁾"라고 한 것과 같이, 물레와 카디는 영국 제품을 배격하고 인도 자신의 것을 손으로 짜는 일을 가르치는 동시에 흑서 때문에 농민기가 긴 인도 농민에게 현금수입의 길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수에 달하는 실업자를 구제하였고, 인도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며, 대중이 타인의 구제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립하려는 정신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카디는 이 모든 일을 큰 자금 없이 추진 가능하게 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카디는 인도로 하여금 가난한 농민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게 해 주었고, 인도의 국민적 통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함에 따라 국민적 통일의식과 자립 정신을 대중간에 환기 함양시켜줌으로써 앞날의 보다 큰 민족투쟁을 위해 국민을 계몽 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인간생활에 있어 복식의 존재의미와 이들과의 관계를 再考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특수한 상황에서 인도의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 속에布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점에 주목하고, 이 프로그램 중 간디가 전개한 카디운동이 인도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도의 면직물공업은 19세기 전반까지 2천년 동안 세계 제1의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었으나,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부터는 점차 원료를 생산하는 식민지로, 또 영국의 값싼 완제품의 상품시장으로 전략함에 따라, 일반 대중의 경제적 빈곤이 격심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농민폭동이 발발하고 여기에 지식층의 불만요인이 더해져서 인도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빈곤과 피폐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범국민적인 민족운동이 간디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영국상품배척운동(Boycott)과 토산물사용 운동(Swadeshi), 그리고 카디운동과 물레의 장려 운동 등 천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운동은 지식계급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하층계급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또한,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들은 물레를 경제적 필수품, 국가적 상징으로까지 생각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대중을 참가시키기 위하여, 손으로 실을 짠 일과 짜는 일을 승인하고, 카디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국민회의의 로고로서 물레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천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프로그램 중 카디는 인도의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카스트의 구별을 초월한 국민적 통일과 자유와 평등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인도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든 수단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 자치를 가져오게 한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카디라는 직물은 인도로 하여금 가난한 농민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게 해 주었고, 인도의 국민적 통일의 상징적인

22) Pandit, Vijayalakshmi, *The Scope of Happiness*, N.Y.: Crown, 1979, p.82.

23) Jawaharlal Nehru, *The Discovery of India*, Calcutta, 1946, p.355.

의미를 내포함에 따라 국민적 통일 의식과 자립 정신을 국민에게 함양시켜줌으로써 앞날의 보다 큰 민족 투쟁을 위해 국민을 계몽 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있어 복식이란 단지 功利的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서 소비되고 廢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중에 이러한 복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복식의 존재를 인식하며, 동시에 복식은 주어진 의미를 통하여 인간들의 생활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인간과 복식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대화적이라 할 수가 있겠다. 이와 같이 신변 주위에 있는 물질문화인 복식은 공간적, 시간적, 문화적으로 구축되어지는 것이라 하겠으며,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힘으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she, Geoffrey, *Gandhi*, N.Y.: Stein and Day, 1968.
- Bean, Susan S., *Spinning Independence, In Making Things in South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8.
- Brown, Judith M., *Gandhi's Rise to Power: Indian Politics 1915-19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Chandra, Bipin. *The Rise and Growth of Economic Nationalism in India*, New Delhi. 1966.
- Daniel, Argov. *Moderates and Extremists in the Indian Nationalist Movement*, Bombay: Bombay Press, 1977.
- Gittinger, Matticbelle. *Master Dyers to the World*, Washington, D.C.: Textile Museum Gold, Gerald. 1982.
- Irwin, John, *Indian Textiles in Historical Perspective*. Marg X V(4), 1962.
- Majumdar, R.C., *An Advanced History of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Martin, Lewis. *The British in India-Imperialism or Trusteeship*, Boston: Bacon Press. 1982.
- Nanda, B. R., *Mahatma Gandhi*, Boston: Bacon Press. 1958.
- Nehru, Jawaharlal, *The Discovery of India*, Calcutta. 1946.
- Pandit, Vijayalakshmi, *The Scope of Happiness*, N.Y.: Crown. 1979.
- Tambiah, S. J., "The Politics of Language in India and Ceylon" *Modern Asian Studies*, 1,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Nehru, Jawaharlal. 김종철 역. 인도의 발견, 한길사. 1946.
- Tomlinson, B.R., 이육순 역. 인도경제사, 신구문화사. 1994.
- 조길태. 印度史, 민음사. 1994.
- 조길태. 영국의 대인정책과 인도국민운동의 성격, 아세아연구 53호, 아세아문제연구소. 1975.
- 차기벽, 간디, 太陽文化史. 1977.